「권장 연가일 사용 이행여부 특정감사」 결과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1. 5. 31. ~ 6. 2. (예비감사, 3일)
‘21. 6. 3. ~ 6. 11. (실지감사, 7일)

○ 감 사 단 : 감사담당관 등 5명

○ 중점감사 사항 : 코로나 19 유행 및 확산 시기(‘20. 1월~12월) 중 **개인별 권장 연가일** 사용 이행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 「공직사회 코로나 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

□ 감사 결과 (통보 1건)

○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 총 52개 부서(69명)

합 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건	명	소계	개선	시정	권고	경고	주의	통보	소계		징계		경고		주의		회수		환급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금액(원)	건	금액(원)
1	-	1	-	-	-	-	-	1	-	-	-	-	-	-	-	-	-	-	-	-

□ 개인별 권장 연가일 사용 미이행 (통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조(연가 일수) 등에 따르면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개인 연가를 평상시 **자유롭게 사용**하여 생활 만족도와 직무 생산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음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11일**(1월이상~1년미만), **12일**(1년~2년), **14일**(2년~3년), **15일**(3년~4년), **17일**(4년~5년), **20일**(5년~6년), **21일**(6년이상)

- 또한, **행안부, 인사처**는 **코로나 19 유행 및 확산** 시기인 ‘20.1월~12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연가**의 **자유로운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부서장 등이 직원의 연가 사용 등을 **1/3이상 비율로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한 바 있음

* 공직자 코로나 19 확산·방지 복무관리 지침 등(행안부, 인사처 등)

○ 이에 '20. 1월~ 12월 **본부, 평가원, 지방청 직원(공무원)** 대상 **개인별 권장 연가일 사용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 총 **52개 부서**[1]의 **69명**이 **1일~8일 개인별 권장 연가일***을 **미사용**

* **개인별 권장 연가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소 10일 이상**으로 산정(**우리 處 15일,** 다만 파견·휴직자 등의 경우 15일 이하 산정), **미사용 권장 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 지급**에서 **제외**

○ 미사용자(69명)를 **성별, 근무지, 근무경력, 근무분야** 등으로 **구분**한 **결과,**

- **여성(48명, 70%)**과 **6급 이하(44명, 64%) 직원**이 **다수**,

- **근무지는 본부(34명, 49%)**· 지방청(20명, 29%)· 평가원(15명, 22%) **순**

- **분야별로는 의약품·바이오(29명, 42%)**· 식품(17명, 25%)· 의료기기(9명, 13%) 등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39명, 57%)**에서 **권장 연가 사용 미이행**이 **많음**

○ **권장 연가일 미사용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사용자(69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붙임] '권장 연가일 사용 미이행자 설문조사서 분석 결과 (총 69명))' 참고)

- **(미사용 사유) 코로나 19 대응 등 현안 처리 및 부재 시 업무대행 곤란 등의 우려(43명, 62%)**로 **미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

1) 52개 부서(본부 24개 부서(34명), 평가원 11개 부서(15명), 서울청 등 5개 지방청 17개 부서(20명))

· 그 외 권장 연가일수 미인지와 연가 계획이 없어서(22명, 32%)· 상급자 눈치 및 무응답(4명, 6%) 순으로 확인

- **(부서장 독려 여부)** 부서장 이상으로부터 독려받아 사용(46명, 67%)이 다수였으나 독려 없음(23명, 33%)도 많았고, 연가 사용 자제(제한)로 미사용 1건(1명)도 확인

- **(연가 활성화 방안)**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서내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45명, 65%)이 가장 많았고,

· 그 외 부서장 이상의 연가 사용 적극 권장 노력(12명, 18%)· 연가로 담당자 부재시 실질적인 업무대행자 지정(9명, 13%)· 본인의 연가사용 의지(3명, 4%) 순이며

- **(기타)** 권장 연가 사용시 불편사항과 개선해야 할 점으로 연가 부재시 실질적인 업무대행자 지정 필요(7명, 47%)

· 현안 및 중요업무 배정시 특정담당자에게만 집중 배정 금지(5명, 33%)· 정부원격근무지 등 외근시 연가신청 시스템(e-사람) 접속 가능 필요(3명, 20%) 순으로 확인

⇨ **개인별 권장 연가일 사용을 미이행**한 **대변인실 등 52개 부서(69명)**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 및 「공직사회 코로나 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휴식을 통한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 연가일 적극 사용을 위한 이행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시기 바람 **(통보)**

별표 **개인별 권장 연가일 사용 미이행자 부서별 지적사항 일람표 (통보)**

연번	지적사항 세부내용	소속 기관	소속 국(부)	대상부서(미사용자)	처분 요구(안)
1	개인별 권장 연가일 사용 미이행	본부 (34명)	대변인실	대변인실(1)	통보
2			허가총괄담당관	허가총괄담당관(2)	통보
3			첨단제품허가담당관	첨단제품허가담당관(1)	통보
4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1)	통보
5			사이버조사단	사이버조사단(1)	통보
6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	통보
7				국제협력담당관(2)	
8				고객지원담당관(1)	
9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1)	통보
10				식품표시광고정책과(1)	
11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1)	통보
12				수입유통안전과(1)	
13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	통보
14				축산물안전정책과(1)	
15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포함)	의약품정책과(1)	통보
16				의약품관리과(2)	
17				의약품품질과(2)	
18				임상정책과(3)	
19				마약관리과(1)	
20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1)	통보
21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2)	통보
22				혁신진단기기정책과(1)	
23				의료기기관리과(1)	
24				의료기기안전평가과(2)	
25		평가원 (15명)	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3)	통보
26			신속심사과	신속심사과(1)	통보
27			식품위해평가부	첨가물포장과(1)	통보

연번	지적사항 세부내용	소속 기관	소속 국(부)	대상부서(미사용자)	처분 요구(안)
28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1)	통보
29				바이오의약품연구과(1)	
30			독성평가연구부	특수독성과(1)	통보
31			버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2)	통보
32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1)	
33				세포유전자치료제과(1)	
34				화장품심사과(2)	
35			의료기기심사부	정형재활기기과(1)	통보
36		지방청 (20명)	서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1)	통보
37				농축수산물안전과(1)	
38				의약품안전관리과(1)	
39				의료기기안전관리과(2)	
40			경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1)	통보
41				의료제품안전과(2)	
42				의료제품실사과(1)	
43				수입관리과(1)	
44				식품기준분석과(1)	
45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1)	
46				평택수입식품검사소(1)	
47			부산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1)	통보
48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1)	
49			대구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1)	통보
50			광주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1)	통보
51				식품안전관리과(2)	
52				유해물질분석과(1)	

붙임 **권장 연가일 사용 미이행자 설문조사서 분석 결과 (총 69명)**

번호	설문 항목	분석 결과(비율,%)	비고
1	성별	남성 : 21명(30%)	본부 16 평가원 3 지방청 2
		여성 : 48명(70%)	본부 18 평가원 12 지방청 18
2	근무경력	1년이상 ∽ 5년미만 : 17명(25%)	본부 4 평가원 4 지방청 9
		5년이상 ∽ 10년미만 : 13명(19%)	본부 8 지방청 5
		10년이상 : 39명(56%)	본부 22 평가원 11 지방청 6
3	근무분야	식품 관련 : 17명(25%)	본부 6 평가원 2 지방청 9
		의약품·바이오 관련 : 29명(42%)	본부 15 평가원 10 지방청 4
		의료기기 관련 : 9명(13%)	본부 5 평가원 1 지방청 3
		기타(행정지원 등) : 14명(20%)	본부 8 평가원 2 지방청 4
4	코로나 19 대응 등 업무 수행 여부	예 : 46명(67%)	본부 23 평가원 11 지방청 12
		아니오 : 23명(33%)	본부 11 평가원 4 지방청 8
5	권장 연가 사용의 부서내 분위기 여부	예(자유로움) : 62명(90%)	본부 31 평가원 14 지방청 17
		아니오(자유롭지 못함) : 7명(10%)	본부 3 평가원 1 지방청 3
6	(5번 '예' 답변자) 권장 연가 사용이 자유로웠지만 미사용한 이유	▶ 코로나 19 대응 등 현안 업무 처리로 연가 미사용(19명) ▶연가 사용시 업무 대행 등 공백이 우려되어 미사용(19명) ▶연가를 사용할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미사용(13명) ▶권장 연가일수 의무사용을 인지하지 못해 미사용(9명) ▶무응답(2명)	
	(5번 '아니오' 답변자) 권장 연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다고 답변한 이유	▶업무처리 과다 등으로 미사용(3명) ▶부재시 실질적인 업무 대행 등이 어려워 미사용(2명) ▶부서장 이상 눈치가 보여서 미사용(1명) ▶무응답(1명)	
7	권장 연가 사용의 활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부서내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개선·노력 중요(45명) ▶부서장 이상 연가 사용 적극 권장 노력 중요(12명) ▶부서내 실질적인 업무대행자 지정·배정 개선 중요(9명) ▶개인의 연가 사용 의지 및 사전 연가 계획이 중요(3명)	

8	부서자 이상으로부터 연가 사용을 독려(권장)받아 사용한 사실 여부	예 : 46명(67%)	본부 25 평가원 9 지방청 12
		아니오 : 23명(33%)	본부 9 평가원 6 지방청 8
9	부서자 이상으로부터 연가 사용을 제한(자제)받아 사용하지 못한 사실 여부	예 : 1명(1%)	평가원 1
		아니오 : 68명(99%)	본부 34 평가원 14 지방청 20
10	연가 사용시 불편했던 점 또는 개선해야 할 점 (자유롭게 기술)	▶중요·현안 업무 등이 특정인에게 몰리지 않도록 업무 배정 필요(5명) ▶정부원격 근무장소 등 외근시 연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e-사람에 접속 활성화 필요(3명) ▶실질적인 업무대행자 지정·업무배정 개선 필요(2명)	